

18세기 黃易의 訪碑圖 연구: 《岱麓訪碑圖冊》을 중심으로

이 주 현 *

- I. 서론
- II. 黃易의 방비활동과 방비도 제작
 - 1. 청장년기 : 1744-1785
 - 2. 山東에서의 만년 : 1786-1802
- III. 《岱麓訪碑圖冊》의 제작과 의미
 - 1. 「岱巖訪古日記」와 방비여정
 - 2. 《岱麓訪碑圖冊》의 구성과 화풍
- IV. 결론

I. 서론

黃易(1744-1802)는 ‘西泠八家’의 한사람으로 화가로서보다는 전각가·서예가, 금석학자로 알려져 있다. 황이가 활동하였던 乾隆·嘉慶년간은 금석학이 발달하였던 시기로 錢大昕(1728-1804), 翁方綱(1733-1818), 阮元(1764-1849), 武億(1745-1799)등 걸출한 금석학자들이 유적지를 방문하여 석각유물을 발굴하고 이를 기록하여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이룬 시기였다.¹ 황이 역시 활발한 訪碑활동을 통해 武梁祠石室, 三公山碑, 熹平石經殘片 등 문헌으로만 전해 오던 중요한 비석·석각유물들을 찾아내었고, 이를 ‘訪碑圖’ 혹은 ‘紀

* 명지대학교

¹ 顧炎武의 『金石文字記』, 錢大昕의 『潛研堂金石文字跋尾』, 武億의 『金石三跋』, 陳介祺의 『金石文字釋』, 王澐의 『金石萃編』, 孫星衍, 邢昺의 『寰宇訪碑錄』등이 대표적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乾隆·嘉慶년간의 방비활동에 대해서는 葉玉, 「黃易訪碑活動與交友(一)乾嘉時期的訪碑風氣」, 『榮寶齋』(2010.3), pp. 294-307 참조.

游圖’라는 이름의 산수화책으로 제작하였다. 秦祖永(1825-1884)은 『桐陰論畫』에서 황이의 기유도 풍격을 일컬어,

黃小松은 필의가 간결하고 담아하며 산수는 冷逸한 계통을 잇고 있다. 지난날 북경에서
《紀游圖》 16폭을 보았는데 장소마다 발견한 碑刻을 옮겨 그렸다.²

라고 평하였다. 황이의 ‘방비도’는 금석학자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산수화와 결합시킨 독특한 실경산수로서, 학자이자 화가로서 황이의 역량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라 할 수 있다.

중국내에서 황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의 금석학적 업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서예나 회화 역시 금석학 탐구의 연장선으로 파악하고 있다. 2009년 북경 고궁박물관에서 ‘故宮藏 黃易 小蓬萊閣 漢魏碑刻 特別展’을 통해 황이의 방비도가 전시되었고 2012년에는 연구성 과를 모아 『黃易與金石學論集』이 출간되었으나, 황이가 발견한 유물을 서예와 회화를 통해 고고학적으로 고증하는 것에 많은 지면이 할애 되었다.³ 최근 그의 화가로서의 면모를 고찰하는 학위논문들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형편이라 할 수 있다.⁴

본고에서는 산동지방에서 황이의 방비활동을 그린 1797년작 《岱麓訪碑圖冊》을 실경산수의 한 형태로 보고, 그 화면구성과 필법 등 회화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⁵ 특히 매일의 방비일정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황이의 『岱巖訪古日記』와, 《岱麓訪碑圖冊》의 매 폭 마다에 달린 황이의 발문을 고찰함으로써 시각적 경험으로서의 회화와 구별되는 문자기록으로서의 일기와 발문의 효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黃小松司馬易, 筆意簡淡, 所寫山水係冷逸一路, 余昔在都門見紀游冊十六幀, 傳寫其隨地所得碑刻”, 『清人畫學論著』下(台北: 世界書局, 1997), p. 40.

3 故宮博物院 編, 『黃易與金石學論集』(北京: 故宮出版社, 2012). 이 논문집에는 모두 38편의 논문이 실렸는데 회화관련 논문은 單國強, 「黃易의 訪碑圖」; 李明, 「金石學」, 山水畫和繪畫史—從黃易《訪碑圖》談起; 曾藍瑩, 「遺迹探尋與記憶重塑—從黃易嵩洛訪碑圖冊談起」 등 3편이 실렸다.

4 葉玉, 「黃易訪碑活動與交友」, 中國美術學院 博士學位論文(2009); 景滋本, 「君才不獨書詩畫黃絹捫碑過古人—黃易《嵩洛訪碑圖》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2013); 楊國棟, 「黃易生平交游考論」, 山東工藝美術學院 碩士學位論文(2010) 참조.

5 《岱麓訪碑圖冊》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施安昌, 「黃易岱麓訪碑圖」, 『紫禁城』(1987.3), pp. 14-17; 楊愛國, 「黃易山東訪碑」, 故宮博物院 編, 위의 책, pp. 117-125에 일부가 다루어 졌다. 《岱麓訪碑圖冊》의 도판은 故宮博物院 編, 위의 책에 일부가 실렸으며, 『中國古代書畫圖目』 23卷 pp. 236-238에 실림. 현재 북경의 국가도서관에는 민국시기에 석판인쇄로 출간된 『黃易岱麓訪碑圖冊』이 소장되어있다.

II. 黃易의 방비활동과 방비도 제작

《岱麓訪碑圖冊》의 분석에 앞서 본 장에서는 황이의 생애를 그의 방비활동을 중심으로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금석연구에 몰두하며 전국을 유력하였던 1785년까지의 청장년기, 산동지방에서 관직을 받고 방비활동에 집중하였던 1786년부터 만년까지의 두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의 대표적 방비활동과 그 결과로 제작된 방비도의 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장년기: 1744-1785

黃易은 字가 大易, 大業이고 號가 小松, 秋盦으로 浙江省 杭州에서 출생하였다. 부친 黃樹穀은 여기 화가이자 서예, 전각가로 揚州에 체류하며 張照(1691-1745), 金農(1687-1764), 黃慎(1687-1768) 등의 양주 화가들과 교유하는 한편, 運河의 河防과 水利에 관심이 많아 『河防私議』를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이 시기 황이의 생애는 고향친구인 潘庭筠(1742-?)이 저술한 「山東兗州府 運河同知 錢塘黃君 墓志銘」(이하 「묘지명」)에 기록되어 있다.⁷

황이는 여덟 살에 부친 松石公을 여의고... 열 다섯에 형을 따라 湖北 지방을 유력하였다. 스물한 살에 그의 형이 공무에 연루되어 輪臺로 유배를 가게 되어 황이는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이후 固安에서 3년, 武岡에서 5년을 살았다. 이후 直隸의 方伯 鄭公을 보좌하며 伍祐場, 清苑 등지를 유력하였다.⁸

부친을 일찍 여의고 형이 유배를 당한 이듬해부터 황이는 북경 근방의 固安에서 3년간, 湖南省 武岡縣에서 5년간 서당의 훈장생활을 하였다. 1773년경 훈장생활을 청산하고 鄭制錦이라는 舉人출신 지방관리의 막료가 되어 그를 보좌하였다. 鄭制錦이 1774년 江蘇省 鹽城의 武佑場, 河北省 清苑縣 등지에서 知縣을 지내자 그를 수행하며 시문을 대필해주거

⁶ 황이 부친에 대한 기록으로는 錢大昕, 「贈奉政大夫黃松石先生墓志銘」, 『潛研堂文集』 卷四十五 참조.

⁷ 반정균의 묘지명 전문은 浙江省博物館에 소장된 黃易의 《山水冊》의 題跋로 실려 있다. 도판은 『中國古代書畫圖目』 卷 23, 浙 1-603 참조. 묘지명의 전문은 秦明, 「黃易의 訪碑圖與碑刻鑑藏」, 『紫禁城』 (2010.3)에 수록됨.

⁸ “年八歲松石公見背...年十五隨伯兄幕游楚北, 二十一伯兄緣事謫輪臺, 君旋里負米養母. 館固安三年, 武岡五年, 佐直隸方伯鄭公由伍祐場歷清苑者四年.”

나 자제들을 가르치며 4년을 보냈다.

1777년경부터 황이는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潘庭筠은 『墓志銘』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豫工例라는 관직을 시작하였는데, 鄭公이 黃易을 위하여 지인들을 모아 자금을 기탁하여 (하북성) 東河에서 관료가 될 수 있었다. 乾隆 42년에는 主簿에 임명되었으며 ... 東平의 州判이 되었다. 豫工例의 직무는 부친인 松石公이 이미 『河防私議』를 저술하였으므로 그 법을 배워 최선을 다해 연구하였다. 乾隆 45년과 49년, 두 번의 南巡 때 황제가 운하를 경유하자 이를 실수 없이 접대하여 別駕(通判)로 승진하였다.⁹

황이의 출사 경로는 賣官의 형태인 ‘納粟’을 통해서였으며 鄭制錦의 적극적 경제 원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 관직은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한 제방 공사를 책임지는 ‘豫工例’라는 관직이었는데 부친의 영향으로 황이에게는 낯설지 않은 직책이었다. 1780년과 1784년의 건륭제 南巡 시 운하 시찰을 잘 준비하여 이를 계기로 1785년에는 河南 蘭儀의 同知로, 1786년에는 산둥 濟寧의 運河 通判으로 승진하였다.

이 시기 黃易의 인적 교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고향인 항주의 문인들로 陸飛(1719-?), 潘庭筠은 물론, 浙派 전각가 丁敬(1695-1765)에게서 전각을 배우고¹⁰ 奚岡(1746년-1803)에게 1772년 〈林泉清逸圖〉를 그려 주는 등 전각, 회화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 갔다. 두 번째는 북경의 금석학자들로 翁方綱과는 평생 동안 교류를 이어 갔다.¹¹ 황이는 1777년 관직을 받기 위해 2개월간 북경에 머물면서 翁方綱의 詩境軒을 방문하여 熹平石經殘片의 宋代 탁본을 같이 감상하였다.¹² 이후 옹방강이 山東의 學政이 되어 산동에 체류하게 되면서 황이와 더불어 방비활동을 이어갔다. 翁方綱은 『黃秋齋傳』에 이르기를

9 “適豫工例開，鄭公遂糾集同志爲君循例報捐，筮仕東河。乾隆四十二年補主簿...東平州判。調築豫工，松石公嘗著河防私議，君取其法，悉心講求，四十五年，四十九年兩遇南巡回銜經運河，協差無誤，晉秩別駕...五十四年升任蘭儀，次年調運河。”

10 “黃易는 丁敬의 제자이다. 篆隸, 篆刻에 있어 스승보다 뛰어난 점이 있었다. (小松爲丁敬身先生高第, 篆隸鐵筆, 質有過藍之譽)” 阮元, 『小滄浪筆談』 叢書集成初編 (北京: 中華書局, 1985), 卷2, p. 53 참조.

11 葉玉, 앞의 논문, pp. 128-148 참조.

12 《得碑圖冊》의 〈詩境軒賞碑圖〉의 발문에 “건륭정유년 8월 북경에 가서 漢代의 熹平石經 중 尚書, 論語의 殘字를 얻어 翁담계선생의 시경헌에 가져가서 몇몇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즐겁게 감상하였다 (乾隆丁酉八月就選入都, 曩得漢‘熹平石經’尚書, 論語殘字...携至翁學士覃溪先生詩境軒, 與三五同志快觀)”라 함.

황이는 濟寧에서 [땅에 묻혀 있던] 鄭季宣碑를 세웠으며, 곡부에서 熹平二年殘碑를 발견하였고 嘉祥縣의 紫雲山에서는 武斑碑와 武梁祠堂 석실의 畫像石을 발견하였다.... 黃易는 북으로는 河北省, 남으로는 河南省에까지 이르렀다. 사방의 옛것을 좋아하는 문인들이 기이한 문장의 石刻을 얻으면 황이에게 물어 고침을 받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로 인해 황이는 금석 수장에 있어 1인자가 되었다.. 漢나라 印章을 많이 수장하였으며 여러 청동기물, 관지를 종일토록 어루만지며 손에서 놓지 않았다. 회화에 있어서는 倪瓚(1301-1374)과 黃公望(1269-1354)의 법을 겸하여 배웠으나, 스스로 공부하여 畫格을 창조하여 빼어난 가운데의 표를 나타내었다.¹³

위에서 옹방강이 언급한 武梁祠화상석, 鄭季宣碑, 熹平二年殘碑 외에 황이는 三公山碑, 孝堂山石室 등 저술 속에서는 등장하나 실체를 알 수 없었던 중요한 유물들을 재발견하였다. 찾아낸 석각유물은 탁본하여 소장하였고 이를 토대로 『小蓬萊閣金石文字』, 『小蓬萊閣金石目』등을 저술하였다. 이는 최초로 ‘雙鉤法’을 활용하여 주요 석각유물들의 명문을 해독, 고증한 금석학 저술로 알려져 있다.¹⁴

훈장생활을 하던 20대에 황이는 석각유물들을 찾아 杭州, 蘇州, 武錫, 淮安, 常熟 등지를 답사하였는데 그 결과물을 1771년 12폭의 《訪古紀游圖冊》에 묘사하였다. 이 가운데

〈惠山寺〉에는 한 그루의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뒤편의 누대와 전각의 일부분이 묘사되었으며 근방을 유람하는 인물들이 묘사되었다. 일견 明代 吳派의 기유산수도를 연상시키는 이 그림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발문을 통해 분명해진다(도 1).



도 1 黃易, 〈惠山寺〉, 《訪古紀游圖冊》, 1771, 紙本淡彩, 17.4×50.6cm, 복경고궁박물관

13 “君濟寧升起鄭季宣全碑, 于曲阜得熹平二年殘碑, 于嘉祥之紫雲山得武斑碑, 武梁祠堂石室畫像...君北抵燕趙南游嵩落, 又四方嗜古之士所得奇文石刻, 無不就正于君, 以是所蓄金石甲于一時...多蓄漢印, 諸古金雜器物款識, 摩挲終日不去手, 畫雖兼校倪黃而實自成一格, 蒼秀出意表.” 翁方綱의 「黃秋齋傳」은 『復初齋文集』 卷十三, 『續修四庫全書』 1455冊, p. 471에 실렸으며, 전문은 秦明, 앞의 글, p. 19에 실림.

14 程渤, 「清代雙鉤摹寫法研究」, 『美術學報』 (2014.5), pp. 101-102 참조.

惠山寺의 月臺 아래 은행나무는 예스럽고 기이하다. 그 뿌리 아래의 석상에는 ‘聽松’ 두 글자가 새겨져 있다. 전해오기로는 唐나라 李陽冰의 필적이라 한다. 또한 ‘政和 甲午年 張回仲을 비롯한 六人이 함께 놀다’, ‘嘉熙 己亥年 口止泓, 趙希叟’라는 題字가 있다. 乾隆 辛卯年 가을 이곳에 와서 탁본하였다.¹⁵

발문은 화면 오른편의 지붕이 혜산사이고 은행나무 뒤의 넓은 누대는 월대이며, 거대한 은행나무 앞의 넓적한 돌이 당나라 서예가 李陽冰의 필적을 비롯한 여러 명문들이 석각된 石床인 것을 알려 준다. 발문을 읽음으로 인해 평범해 보였던 산수가 실경산수로서의 현장감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또한 발문에 한글자 한글자 정확히 해독된 석상의 명문

은, 화책의 제작의도가 문인들의 산수기유를 묘사한 일반기유도가 아니라 석각유물을 둘러싼 주변 풍경을 금석학적 관점에서 묘사하고자 한 것임을 알려준다.



도 2 黃易, 《北河紀游圖冊》 제8폭, 1778, 9.4×19.5cm, 紙本淡彩, 상해박물관

1778년 황이는 河北 保定 北河鄉을 기유한 후 《北河紀游圖冊》 10폭을 제작하였다(도 2). 黃易은 발문에 “乾隆 戊戌(1778) 가을 桂馥(1736-1805) 형과 함께 北河의 楊繼盛(1516-1555) 사당을 유람하며 며칠을 보냈다. 이때에 비가 그치질 않아 무료함에...倪瓚과 黃公望 양가의 필의를 따라 이 화책을 그렸다”라고 ‘倪黃’의 필의를 사용하였음을 언급하였다.¹⁶ 《北河紀游圖冊》의 제8폭에서 황이가 사용한 ‘예황 필의’의 일단을



도 3 黃易, 《臨董其昌山水圖》, 《書畫詩翰合冊》, 1773, 紙本淡彩

15 “惠山寺月臺下銀杏奇古, 根下石床刻‘聽松’二字, 相傳是唐李少溫迹, 后題‘政和甲午張回仲等六人同游’, 面有‘嘉熙己亥口止泓趙希叟’題字. 乾隆辛卯秋八月游此, 手拓一紙.”

16 “乾隆戊戌秋日, 與未谷學長兄同游北河楊椒山(楊繼盛:1516-1555)先生祠, 盤桓數日, 時微雨連綿無以遣興...略師倪黃兩家筆意寫此.”

찾아 볼 수 있다. 黃公望의 〈富春山居圖〉 일부를 연상시키는 화면구성에 倪瓚 풍격의 갈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필선에는 소묘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전통에 기반을 두면서도 생동감을 잃지 않은 산수 풍격을 구축하였다. 翁方綱의 언급처럼 “倪瓚과 黃公望의 법을 겸하여 배웠으나 스스로 공부하여 畫格을 창조”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시기 黃易는 董其昌(1555-1636)의 산수화풍 역시 공부하였는데 1773年 《書畫詩翰合冊》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도 3). 발문에서는 董其昌을 ‘背任’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나 대담한 구도 가운데 습한 담채를 사용함으로써 동기창의 풍격과는 구별되는 개성적인 倣作을 시도하였다.¹⁷

2. 山東에서의 만년: 1786-1802

이 시기는 산둥지방에서의 관직 생활이 안정되면서 공무 이외의 시간에는 방비활동에 몰두하였다. 1786년부터 산둥 濟寧의 運河通判, 山東 毅城의 主簿를 거쳐 제녕 運河同知 등을 지내며 1795년까지 운하관련 업무를 지속하였다. 1796년 모친의 별세로 관직을 일시 그만두었으나 1799년에는 다시 運河同知로 부임하여 산둥에서 관직 생활을 지속하다가 59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¹⁸

이 시기 황이는 翁方綱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청대의 걸출한 금석학자들과도 교류하였다. 山東 학정으로 부임하였던 옹방강은 1790년 濟寧의 孟子廟에서 제사를 지낸 후 황이의 衙齋에 들러 그가 소장한 金石彝器들을 감상하였다.¹⁹ 이후 1797년 황이는 《岱麓訪碑圖冊》을 완성하여 북경에 있는 옹방강에게 보냈다. 마침 12월 19일 蘇東坡의 생일을 맞아 蘇齋에 모여 있던 羅聘(1733-1799), 趙懷玉(1747-1823), 伊秉綬(1754-1815) 등이 이를 함께 감상하였고 이들은 《岱麓訪碑圖冊》에 발문을 남김으로써 황이와의 필묵연을 이어갔다.²⁰

1793년 옹방강의 후임으로 阮元(1764-1849)이 산둥학정에 부임하고 황이와 교류를 이어갔다. 阮元은 『小滄浪筆談』에서 황이를 평하여

¹⁷ 제5쪽에 있는 황이의 발문에 “董思翁山水冊...背臨其意”라함.

¹⁸ 황이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연구로는 朱琪, 「黃易的家世,生平與金石學貢獻」, 故宮博物院編, 앞의 책, pp. 350-372 참조; 楊國棟, 「黃易活動年表簡編」, 故宮博物院編, 앞의 책, pp. 384-38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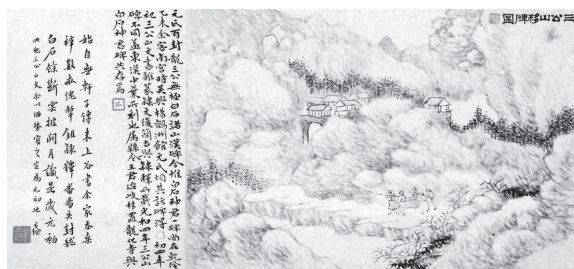
¹⁹ 景滋本, 앞의 논문, p. 28.

²⁰ 翁方綱은 〈鐵山〉, 〈對松山〉, 〈開元摩崖碑〉, 〈岱頂〉, 〈大明湖〉, 〈岱廟〉, 〈大汶口〉, 〈孔林〉, 〈龍洞〉, 〈孟子廟〉, 〈岡山〉, 〈千佛山〉, 〈孔子廟〉, 〈靈巖寺〉, 〈后石室〉에 발문을 남겼다. 趙懷玉은 〈孟子廟〉, 〈對松山〉과 〈岱頂〉에 발문을 남겼다.

錢塘의 黃小松은 산동성 兗州(濟寧)에서 運河司馬를 지냈는데, 서화전각에 있어 요즘사람 들은 미칠 수 없다. 金石刻文을 소장한 것이 3천 여 종에 이르며 宋代의 옛 탁본도 많다. 鐘鼎彝器와 동전, 거울 등도 수백 종이 넘는다. 나는 매번 임성에 갈 때면 반드시 종일을 그곳에 머무르고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黃小松은 일찍이 《得碑圖》12폭, 《嵩洛訪碑圖》, 《秦岱訪碑圖》를 자작하여 수일한 필치로 예스런 정취를 전하였으니 이는 미증유의 일이다.

라고 하였다.²¹ 또한 1793년 黃易가 曲阜에서 熹平二年殘碑를 발견하자 阮元이 이를 孔子廟로 옮기는 등 석비의 발굴과 보존에 뜻을 같이 하였다. 황이는 孫星衍(1753-1818), 趙懷玉, 武億 등 걸출한 금석학자들과도 교류를 이어 갔다. 孫星衍은 《嵩洛訪碑圖冊》과 《岱麓訪碑圖冊》에 引首를 써 준 인물이었다. 황이가 산동에서 관직을 맡았을 당시 山東의 按察使로 재직하면서 교류를 이어 갔다. 趙懷玉은 《岱麓訪碑圖冊》 중 〈孟子廟〉, 〈對松山〉과 〈岱頂〉에 발문을 썼으며, 武億은 1796년 낙양을 황이와 함께 답방하였고 황이에게 수십 종의 탁본을 선물하였다.

황이는 이 시기 크게 세 차례 방비활동을 이어갔다. 첫 번째로는 산동성의 제녕, 가상현을 중심으로 양성산, 진양산, 자운산 등지를 1786년부터 1793년 사이 답사하고 중요한 석각명문들을 찾아내고 탁본하였다. 이 가운데 중요한 금석학적 성과를 모아 1793년 《得碑圖冊》 12폭을 제작하였다.²² 《득비도책》의 각 폭에는 제목이 쓰여 있는데, 이는 황이가 어떻게 ‘삼공산비를 옮기고(三公山移碑)’, ‘옹방강의 시경현에서 熹平二年殘碑



도 4 黃易, 〈三公山移碑圖〉, 《得碑圖冊》, 1793, 紙本淡彩, 17.8×51.5cm, 전진예술박물관



도 5 黃易, 〈三公山移碑圖〉, 세부

21 “錢塘黃小松(易)爲貞父先生后人, 任兗州運河司馬, 書畫篆刻爲近人所不及, 收金石刻至三千餘種, 多宋拓旧本, 鐘鼎彝器錢鏡之屬不下數百, 予每過任城, 必留連竟日, 不忍去. 黃小松賞自作《得碑十二圖》及《嵩洛, 秦岱訪碑圖》, 以秀逸之筆傳邃古之情, 得未曾有.” 阮元, 앞의 책, 卷 2, p. 53 참조.

22 《得碑圖冊》에 대한 연구성과로는 蔡鴻茹, 「黃易《得碑十二圖》」, 『文物』(1996.3), pp. 72-79; 張淑蘭, 「清黃易得碑圖冊」, 『收藏家』(1996. 3), pp. 15-17; 楊愛國, 「黃易與山東訪碑」, 故宮博物院編, 앞의 책, pp. 117-125.

를 감상하고(詩境軒賞碑), ‘땅에 묻혀있던 정계선비를 일으켜 세워 제녕 학궁에 안치하고(濟寧學宮升碑), ‘자운산의 무량사를 찾아내고(紫雲山探碑), ‘가상현 홍복원 비를 탁본(嘉祥洪福院拓碑)’하였는가 등의 구체적 방비활동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 가운데 <삼공산이비도>를 살펴보면, 습하고 부드러운 묵필과 담청색으로 삼공산이 묘사된 가운데, 전경에는 다섯 사람의 인부가 삼공산비를 ‘옮기는(移碑)’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도 4, 5).²³

《득비도책》에 반영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1786年 嘉祥縣 紫雲山의 漢代 武氏祠堂을 재발견하고 이를 중수한 것이었다. 황이는 이를 《紫雲山探碑圖》를 통해 묘사하였다.(도



도 6 黃易, <紫雲山探碑圖>, 《得碑圖冊》, 1793, 紙本淡彩, 17.8×51.5cm, 천진예술박물관



도 7 黃易, <紫雲山探碑圖>, 세부

6) 자운산을 배경으로 화면 우편에 묘사된 무너진 사당이 동한시대 말에 만들어진 무씨 사당으로, 北宋 歐陽脩(1007-1072)의 『集古錄』에도 기록되어 있으나 이후로는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것을 황이가 발견하였다. 성근 화면구성과 소략한 필법 가운데 화면에는 무량사 유물을 수습하기 위해 작업을 지시하는 황이의 모습이 묘사되었다(도 7). 화면 왼편에는 두 대의 마차가 비석을 옮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²³ 황이는 다음과 같이 발문을 통해 삼공산비를 찾아내게 된 경위와 삼공산비의 서체와 제작시기, 찾아 낸 이후의 사후 처리들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元氏縣에는 封龍山, 三公山, 無極山, 白石山 등이 있다. 漢나라 때 만들어진 비석은 白石神君碑가 유일하다. 乾隆 乙未年 내가 南昌에 있을 때 吳興의 楊鶴洲가 원씨현에 관직을 살면서 수고스럽게 비석을 찾다가 四年祀三公山文을 얻을 수 있었다. 서체는 전서와 예서가 섞여 있고 문장은 간결하고 고졸한데 『隸釋』에 기재된 光和四年三公山碑와는 다른 것이지만, 모두 東漢 중엽에 새긴 것이다. 현령인 王治岐에게 말하여 龍化寺로 비를 옮겨 백석신군비와 함께 두도록 하였다(元氏有封龍, 三公, 無極, 白石諸山. 漢碑今惟白石神君一碑尚在. 乾隆乙未余客南宮時, 吳興楊鶴洲館元氏, 煩其訪碑, 得口初四年祀三公山文, 書雜篆隸, 文復簡古, 與『隸釋』所載光和四年三公山碑不同, 蓋東漢中葉所刻也. 屬縣令王君治岐移置龍化寺與白石神君碑共存焉).” 원씨현에서 발견된三公山碑는 두 개가 있는데 황이가 楊鶴洲와 함께 발견한 비는 옹방강이 후에 117년 명으로 고종한 <祝三公山碑>로서, 宋代 洪适이 저술한 『隸釋』에 기재된 光和四年三公山碑(181년)비와 구별되는, 많은 청대 서예가들의 임서의 범본이 된 중요한 비석이다.

황이는 발문을 통해 무량사화상석을 발견한 것을 “평생의 쾌사”라고 기뻐하며, 이곳에서 武斑의 碑와 무씨사당의 前室, 後室, 左室의 세 석실 및 祥瑞圖, 石闕, ‘孔子見老子畫像諸石’ 등의 유물을 수습하였음을 기록하였다.²⁴ 『嘉祥縣志』의 기록을 보고 무씨사당이 영락했다는 사실을 안 황이는 현장으로 직접 가서 유물을 수습했을 뿐 아니라 翁方綱, 李東琪 등과 사비를 출자하여 무씨사당을 중수하였고 대표적 화상석인 ‘孔子見老子畫像’은 濟寧의 明倫堂에 옮겨 보존하였다.

1771년의 《방고기유도책》이나 1778년의 《北河紀游圖冊》과 비교하면 1793년작 《득비도책》에는 습한 피마준과 반두형 암석이 강조되어 董源(943-962)의 풍격에 기반한 정통주의 화풍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이가 1787年 董源의 필의를 표방하여 《仿北苑山水冊》 10폭을 제작하였음을 고려하면 필법에 보이는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²⁵

두 번째 방비활동은 1796年 9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35일간 이루어졌다. 1796년 황이는 모친이 제녕에서 별세하자 향주로 모시기 위해 관직을 사직하였다. 이 기간 동안 황이는 嵩山과 洛陽을 중심으로 鄭州-偃師-登封-洛陽-龍門鎮-嘉祥-濟寧 등지를 유력하고 400여 장의 옛 비석을 탁본하였다. 그 여정을 『嵩洛訪碑日記』에 문자로 기록하고, 《嵩洛訪碑圖冊》 24폭을 통해 그림으로 남겼다.²⁶ 《得碑圖冊》이 ‘移碑’, ‘探碑’ 등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면, 《송락방비도책》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한정된 지역의 방비활동을 기록한 것이므로, 비석 자체보다는 비석이 세워진 근방 유적지의 모습을 생생히 살

²⁴ 발문에 “乾隆 丙午年 가을 『嘉祥縣志』를 살펴보니 자운산의 石室이 영락하여 옛 비에는 구멍이 생겼다고 하였다. 탁본을 해보니 한나라 때 돈황의 장사였던 武斑의 碑 및 武梁祠堂의 畫像石임을 알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가서 前室, 後室, 左室의 세 석실 및 祥瑞圖, 石闕, ‘孔子見老子畫像諸石’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까지 얻은 비석은 많았으나, 이보다 나은 것이 없었으니 평생의 쾌사라 할 만 하다. 옛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무씨사당을 중수하고 비석들을 그 안에 배치하였다. ‘孔子見老子畫像諸石’은 제녕의 明倫堂으로 영구히 옮겼다(乾隆丙午秋, 見嘉祥縣志, 紫雲山石室零落, 古碑有孔, 拓視乃漢敦煌長史武斑碑及武梁祠堂畫像...次第搜得前后左三石室, 祥瑞圖, 武氏石闕, 孔子見老子畫像諸石, 得碑之多, 無逾與此, 生平之快之事也. 同海內好古諸公重立武氏祠堂, 置諸碑于內, 移孔子見老子畫像一石, 于濟寧州學明倫堂垂永久焉.)”

²⁵ 《仿北苑山水冊》의 마지막 장의 발문에 “건륭52년 봄 2월 소봉래각에서 복원의 필의로 그리다(乾隆五十二年春二月擬北苑大意于小蓬萊閣, 黃易.)”라 함. 이 그림의 도판은 1920年 商務印書館 출간의 『黃小松山水精品』에 실림. 이외에도 1793년에는 《仿倪瓚山水圖》를 제작하였으며, 1797년의 《山水手卷》에는 ‘董其昌이 黃公望을 倣作한(董思翁倣大痴老人筆) 필의’로 전형적인 정통주의 화풍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도판은 Chou Ju-hsi, Claudia Brown, *The Elegant Brush - Chinese Painting under the Qianlong Emperor 1735-1795* (Phoenix, Ariz.: Phoenix Art Museum, 1985), pp. 255-256 참조.

²⁶ 黃易, 『嵩洛訪碑日記』, 『粵雅堂叢書』(臺北: 藝文印書館, 1965), pp. 1-11 참조. 《嵩洛訪碑圖冊》에 대한 연구성과로는 Lilian Lan-Ying Tseng, “Retrieving the Past, Inventing the Memorable: Huang Yi’s Visit to the Song-Luo Monuments,” in *Monuments and Memory, Made and Unmad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2003), pp. 37-58.



도 8 黃易, 〈奉先寺〉, 《嵩洛訪碑圖冊》, 1796, 紙本淡彩, 17.4×50.8cm, 북경고궁박물원

운데 웅장한 불상이 가져다주는 봉선사동의 장엄함이 묻어난다.

老君洞 북쪽의 奉先寺址는 속칭 九間房이라고도 한다. 대 비로자나불의 높이는 8丈 5尺인데 돌비탈이 위험스럽게 미끄러워 武億은 오르려하다가 못 올랐으나 나는 끝내 오를 수 있었다. 開元 10年(722)의 造像記가 있고 宋나라 天聖2年 丁裕의 題名이 佛座의 뒤에 있다. 張九齡(678-740)이 찬한 分書 牛氏像龕記, 內侍省功德碑, 魏國公殘碑가 동쪽 벽에 새겨져 있다. 이튿날 사람을 보내어 비석을 탁본하게 하였는데 大歷七年(770) 党曄 등과, 元和 12年(817) 辛秘의 題名을 얻을 수 있었다.²⁷

위의 발문은 황이가 봉선사동을 방문한 실제 이유가 불상이외 開元 10年의 造像記, 牛氏像龕記, 內侍省功德碑, 魏國公殘碑 등의 비문을 수습하기 위해서였음을 알려준다. 황이는 자신이 직접 봉선사동의 명문들을 확인한 후 이튿날 탁공을 보내어 모든 비문들을 탁본하게 하였다. 이렇게 습득된 탁본들은 일반적으로 방비여행이 끝난 후에 정확한 고증과 해석을 덧붙였다. 화책이 완성된 이듬해 북경에서 〈봉선사〉를 감상한 翁方綱은 발문을 통해 “이와 같은 石象은 황이가 아니라면 그릴 수 없다. 12월 19일 蘇齋에서 친구들이 모였을 때 나병이 이를 보고 찬탄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황이의 묘사력을 칭찬하였다.²⁸

세 번째의 방비활동은 1797년 1월과 2월 濟寧, 濟南, 泰山 지역을 방문하면서 「岱麓訪古日記」를 남기고, 24폭의 《岱麓訪碑圖冊》을 제작한 것이었다. 세 번째 방비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²⁷ “老君洞北奉先寺址, 俗名九間房. 大盧舍那石像高八丈五尺. 坡磴危滑, 虛谷欲登未果, 余竟登之. 開元十年造像記, 宋天聖二年丁裕題名刻佛座后, 張九齡分書牛氏像龕記, 內侍省功德碑, 魏國公殘碑刻東壁. 越日遣工拓碑, 又得大歷七年党曄等, 元和十二年辛秘題名.”

²⁸ “如此石象非秋龕不能畫也. 十二月十九日同人集蘇齋羅君兩峰贊嘆不已. 方綱記.”

Ⅲ. 《岱麓訪碑圖冊》의 제작과 의미

황이가 16년 동안 관직 생활을 했던 산동지방은 魯(지금의 山東省 曲阜), 曹(定陶), 滕(滕縣), 邢(聊城), 齊(臨淄) 나라 등이 존립했던 지역으로 공자와 맹자의 고향이 있고 五岳의 으뜸인 泰山이 있는 지역이었다. 특히 태산은 진시황제가 封禪의식을 행한 이후 漢武帝, 唐玄宗 등 많은 황제들의 봉선의식 장소였으며 57개의 도관과 사찰이 운집하여 도교와 불교관련 석각유물이 풍부하였다. 산동지역의 석각 유물들은 宋代 이래로 산동 출신의 문인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諸城 출신 趙明誠(1081-1129)과 그 부인 李清照(1084-1155)가 저술한 『金石錄』, 제녕 출신 王球의 『嘯堂集古錄』, 萊州 출신 劉繹如의 『金石苑』, 濟南출신 周密(1232-1308)의 『雲烟過眼錄』 등에 의해 산동 금석학의 전통이 만들어졌다. 금석학의 부흥기를 맞았던 乾隆·嘉慶年間에는 翁方綱, 阮元, 孫星衍, 武億, 黃易 등 타지역 출생이지만 산동에서 관직을 역임하였던 관료학자들에 의해, 혹은 段松齡(1744-1800), 李東琪, 聶劍光(1711-1796) 등의 산동 금석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축적되었다. 황이는 이 같이 풍부한 선학들의 저술과 동료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방비의 지침을 삼을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岱巖訪古日記」에 묘사된 방비 일정을 고찰한 후 《岱麓訪碑圖冊》에 드러난 회화적 특성, 발문의 역할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岱巖訪古日記」와 訪碑 여정

「대암방고일기」(이하 「일기」)는 1797년 1월 7일부터 2월 5일까지 짧게는 2줄, 길게는 10줄 정도의 일정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글로 도합 9쪽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일정은 사위인 李端本(此山), 친구인 江鳳彝(巨香)이 동행하였으며, 1월 14일에는 태산에 祈雪祭를 드리러 온 손성연이 합류하였다. 「일기」에 의하면 황이가 방문한 지역은 크게 1. 濟寧, 2. 濟南, 3. 泰安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²⁹ 제녕에서는 鄒城에서 孟子廟 - 崗山·尖山·鐵山·葛山을 보았고, 曲阜에서는 孔子廟, 孔林을 방문하였다. 제남에서는 大明湖 - 龍洞 - 佛峪 - 千佛山 - 五峯山 - 靈巖山 등을 둘러보았으며, 泰安에서는 泰山과 岱廟를 방문하였다. 황이의 태산 등반의 일정을 살펴보면 1월 30일 岱廟에 도착하여 이튿날 태산에 타고 오를 수레를 수배하였고, 2월 1일부터 등반을 시작하여 對松山 - 十八盤 - 南天門 - 碧霞元君祠 -

²⁹ 일기에 “태산으로 오르는 길에 빙설이 쌓여 오를 수 없다(岱麓盤路尙積冰雪未可登陟)”고 함. 黃易, 「岱巖訪古日記」, 정월 18일, 『遜齋金石叢書』(杭州: 西泠印社, 1921), p. 83.

玉皇頂 - 後石屋 - 孔子崖를 보았다. 2월 2일에는 日觀峯 - 蠟燭峯 - 南天門 - 壺天閣 - 雨花道院을 둘러보았고 2월 3일에는 王母池 - 呂公洞 - 老君堂 - 唐 鴛鴦碑 - 岱廟 - 岱麓書院을 두루 살폈다.³⁰

「일기」를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가 방문지역에서 발견한 석각유물에 대한 묘사로, 1월 8일 추성의 맹자묘를 방문하고 적은 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泗河를 지나 柳溝에 이르러 길가에서 大德十年 吳祥書忠顯周公碑를 발견하였다...발걸음을 옮겨 성 남쪽의 孟廟에서 여러 개의 비석을 보았다. 斷機堂을 지나 元至正년간의 張銓碑를 보았는데 비면에는 전서로 ‘暴書臺’라는 3글자가 새겨져 있었다...남문성루에서는 金나라 大安3년 철종을 보았는데, ○威將軍○○張○克匠人李勅 등의 이름이 있었다. 성밖 石橋의 殘石에는 ‘泰山石天輔四年定’이라는 명문이 있었다.³¹

맹자묘를 방문한 개인적 감회나 감흥이 배제된 채, 황이는 자신이 발견한 비석을 열거하고 명문을 일일이 해독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전체 일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두 번째는 방비활동에서 벗어나 지인들을 만나 주연을 벌이고 경관을 감상한 ‘유람’의 기록이다. 예를 들면 길에 눈이 녹지 않아 태산등반이 지연되고 대보름을 맞이하면서 황이는 정월 16일에서 19일까지를 제남에서 보내면서 大明湖에 배를 띄우고 놀거나 지인들과 주연과 유람으로 시간을 보냈음을 적고 있다.

세 번째는 방문 지역의 지인들을 찾아가 소장품을 본 기록이다. 1월 14일에 孫星衍의 嘉石軒에 들러 金石彝器를 관람하고 이를 탁본하였다. 회화작품을 감상한 기록은 1월 23일 “朱敬敷를 방문하여 沈石田(1427-1509)이 黃公望을 방작한 靑綠細筆山水를 보았는데 극히 정묘하였다. 陳淳(1159-1223)의 대폭 물골화 역시 아름다웠다. 禹鴻臚가 그린 朱敬敷의 조부 子湘先生 초상과 徐易이 그린 山左의 이름난 관리들의 초상 역시 극히 공묘하였다”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³² 1월 24일의 일기에는 “偃師의 王秋塍에게는 禹鴻臚가 趙孟頫

³⁰ 태산에서의 일정은 「岱巖訪古日記」 2월 1일-5일에 묘사되었다. 『遜齋金石叢書』, pp. 85-87 참조.

³¹ “渡泗河至柳溝道旁見大德十年, 吳祥書忠顯周公碑...城南孟廟觀諸碑, 過斷機堂見元至正年張銓碑, 面刻‘暴書臺’三篆字...南門城樓金大安三年鐵鐘, 有○威將軍○○張○克匠人李勅等名, 城外橋面殘石文曰‘泰山石天輔四年定.’”

³² “訪朱敬敷觀所藏, 沈石田仿大痴靑綠細筆山水極精... 陳道復沒骨畫大幀亦佳, 禹鴻臚爲朱君之祖子湘先生寫小像及徐易畫山左諸名宦像, 甚工妙” 黃易, 「岱巖訪古日記」, 1월 23일, 『遜齋金石叢書』, p. 85 참조.

(1254-1322)의 <鵲華秋色圖>를 모사한 작품이 있다”라고 하여 沈周, 陳淳, 禹鴻臚 등의 작품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³³

「일기」는 황이가 <岱麓訪碑圖冊>을 그리기 위해 여정을 되살릴 때 기억의 토대가 되는 문자기록이었다. <岱麓訪碑圖冊>을 제작할 때 「일기」의 내용과 현장에서 수습한 탁본 등을 토대로 석각 유물이 가장 풍부하였던 곳을 선택하여 화면에 옮길 수 있었으며, 「일기」의 일부를 <岱麓訪碑圖冊>의 발문으로 옮겨 적기도 하였다. 일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岱麓訪古日記」 내용

| 날자 (1797년) | 방문지 | 유적명 | 황이가 확인한(탁본한) 유물 |
|---------------|----------|------------------------|--|
| 1월7일 | 濟寧 | | -濟寧 東門의 석불상 -兩城山으로 가려다가 길이 짙어 鄒城으로 여정을 바꿈 |
| 8일 | 鄒城 | 孟子廟, 崗山,尖山 鐵山,葛山 | -大德十年 吳祥書忠顯周公碑 -맹자묘에서 元 至正年間的 張銓碑에 篆書로 쓰여진 ‘暴書臺’ 세 글자 발견 -元貞年間 張頴碑 -至正4年 潘迪이 分書로 쓴 碑 -金 大安3年 鐵鐘 -石橋 殘石의 刻文 ‘泰山石天輔四年’ -崗山,尖山,鐵山,葛山의 摩崖石經은 바람이 강하여 가까이 보지 못함 |
| 9일 | 曲阜 | 孔子廟 | -孔子廟의 비석들 -永壽元년의 孔君碑 -後魏 李仲璇碑의 측면에 새겨진 王長孺 필적 一行 -宋 大中祥符元년의 張齊賢祀廟碑 뒷면 裴瑀의 필적 一行 |
| 10일 | 曲阜 泰安 | 孔林, 大汶口 | -孔林 동쪽의 洙泗書院에서 元나라 碑石 -泰山廟 안에 宋 元豐년간 河嵩 등이 만든 石幢 -大汶口の 100丈이 넘는 길이의 석교 |
| 11일 | 泰安 | 岱廟 | -눈이 녹지 않아 태산에 오르지 못하고 岱廟를 방문, 宋,金,元나라의 비석을 봄. -岱廟 峻極展 앞 鐵甕의 명문 ‘宋 建中靖國元年 李諒等造’. -계단 아래의 怪石에 大安元年 泰府의 吳衍이 쓴 題字. -冥福院에 後晉 天福年間的 石幢 4개 -元 大德 9年 鐵鐘 |
| 12-14일 | 濟南 | 濟南 | 12일: 태안성에서 수레로 대불령을 지나 장하에서 묵다. 13일: 歷城 西關에 이르러 태안태수 金素中の 초대로 館舍에 머물다 14일: 孫星衍을 만나 嘉石軒 소장의 金金彝器를 보고 탁본함. |

³³ “偃師王大令秋澄, 有禹鴻臚摹趙文敏鵲華秋色圖” 黃易, 「岱麓訪古日記」, 1월 23일, 『遜齋金石叢書』, p. 85 참조.

| 날자 (1797년) | 방문지 | 유적명 | 황이가 확인한(탁본한) 유물 |
|---------------|-----|------------|--|
| 15-20일 | 濟南 | 大明湖 | -小滄浪亭에서 주연 -大明湖 유람 후 北極閣에 올라 滿月을 바라보다 -孫星衍의 嘉石軒에서 주연 -孫星衍과 대명호를 유람 |
| 21일 | 濟南 | 龍洞 | -손성연과 용동 안을 햇불을 들고 들어가 살펴봄. -後魏 天平四年 驃騎大將軍 汝陽王叔○의 造像銘 -宋 元豐 韓鐸의 祈雨題名 -元 延祐년간 세운 石碑 -「濟南縣志」에는 동굴 후벽 사이에 隋나라 때 石刻文과 墨書가 있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함 |
| 22일 | 濟南 | 佛峪 | -般若寺 방문 -般若寺 암벽의 착색 불상 -隋 開皇7년 비구니 靜元이 조성한 불상 -唐 乾元4년 조성한 불상 -開成2年 金剛會碑 |
| 23일 | 濟南 | | -朱敬敷를 방문, 소장 沈石田傲大痴靑綠細筆山水圖 감상 -陳道復의 沒骨花卉 -禹鴻臚가 그린 朱敬敷의 할아버지 子相先生 초상 -徐易이 그린 山東의 諸名臣像 |
| 24일 | 濟南 | 千佛山 | -興國寺 隋代 불상과 開皇7년-23년 刻한 題字 十餘段 -元代에 새겨진 ‘唵’字刻文 |
| 25일 | 濟南 | 豹突泉 | -표돌전에서 趙孟頫의 題字를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함. |
| 26일 | 長淸 | 五峯山 | -三清殿 앞 元 定宗2년의 崔眞人像 -元好問, 劉祁 등의 題字 -洞眞觀碑 |
| 27일 | | 五峯山 蓮花洞 | -蓮花洞의 隋代의 刻文 50여 단 -宋代 嘉祐元祐年間 張度 등이 쓴 題名 2종 |
| 28일 | | 靈巖寺 功德頂 | -靈巖寺의 辟支塔을 본 후 功德頂을 올라감 -靈巖寺 내 수십기의 비석들을 탁본하다 |
| 29일 | | 靈巖寺 | -영암사 내의 甘露泉, 鐵袈裟, 朗公石 답사 -觀音洞에 宋나라 題字가 가장 많아 탁본하게 함 |
| 30일 | 泰安 | 岱廟 | 岱廟의 雨花道院에서 泰山에 오를 가마를 수배 |
| 2월1일 | 泰安 | 태산등반 | -태산등반: 대송정-십팔반 -원군상묘에서 明皇이 摩崖石刻 한 24행, 宋 趙德甫 題名, 開元 20年 道士 董靈寶 題名 -唐 東封 從臣諸名 -宋 元代之 題名 -乾封元年 제사 참여자의 題名 -岱頂의 無字碑 |
| 2일 | 泰安 | 태산등반 | 日觀峯-蠟燭峯-南天門-壺天閣 등반 |
| 3일 | 泰安 | 태산하산 | -唐 鴛鴦碑 |
| 4일 | 泰安 | | -天書觀에서 神宗이 만든 九蓮菩薩, 懷宗이 만든 智上菩薩天女四像 -高星山의 後晉 시대 石幢 |
| 5일 | 濟寧 | | -江居香으로부터 李邕의 麓山寺碑 탁본을 선물 받다 |

2. 《岱麓訪碑圖冊》의 구성과 화풍

《岱麓訪碑圖冊》 24폭은 종이 위에 먹과 淡紅·淡靑으로 채색되었으며, 각 폭에는 황이가 예서 혹은 전서로 쓴 제목과 묘사한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을 상세히 소개한 발문이 쓰여 있다. 《岱麓訪碑圖冊》의 마지막 폭에 황이는 다음과 같이 여행의 동기를 밝혔다.

嘉慶2年 1797년 정월 7일 나는 사위 李此山과 함께 태산을 여행하려 鄒나라, 魯나라 땅으로부터 泰郡에 도달하였다. 비록 맑은 기운이 퍼져 있었으나 구불구불한 길 위에는 눈이 내려 태산에 오를 수 없었다. 이에 [제남 동남부의] 歷下에 이르러 江柜香과 함께 여러 승경을 두루 유람하였다. 2월에 태산에 이르러 정상에 올랐고 여러 비석, 석각을 탁본함으로써 나의 숙원이 비로소 이루어졌다.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이르러서는 粉本을 남겨 24장의 그림을 완성하였다. 아울러 얻은 금석들을 기록함으로써 古緣을 기억하고자 한다.³⁴

황이의 발문은 29일간 여정의 궁극적 목적이 ‘태산등반’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화책의 소재를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태산지역 8장면, 제녕 6장면, 제남 10장면으로 구성되었다(표 3 참조). 태산등반이 1797년 2월 5일 끝났고 화책이 같은 해 7월 27일 완성되었으므로 여행이 끝난 후 5개월 여가 지난 후 화책이 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5개월 동안 황이는 방비 여정 중에 수습하였던 탁본들을 해독하고 고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일기」에는 없는 구체적인 방비활동의 결과물을 발문에 반영할 수 있었다.

황이는 화책이 완성되자 손성연에게 引首를 부탁하였고 손성연은 ‘岱麓訪碑’ 네 글자를 篆書로 쓰고, 아래와 같은 발문을 남겼다.

嘉慶2年 秋 龔司馬가 친척과 친구들을 이끌고 泰山을 유력하였다. 태산에 祈雪祭를 드리러 온 나를 만나 태산에서 합류하여 石經谷과 王母池의 여러 승경을 방문하고 제시를 남기고 돌아왔다. 秋龔이 遊歷한 바를 24장의 그림으로 기록하였으니... 친히 답사하지 않은 자라면 이 같은 ‘神似’를 알 수 없을 것이다³⁵

³⁴ “嘉慶二年(1797)正月七日, 余携女夫李此山游岱, 自鄒魯達泰郡, 淑氣雖舒, 盤道猶雪, 不及登山, 遂至歷下, 與江柜香遍覽諸勝. 二月至泰山, 登絕頂, 遍拓碑刻, 夙願始償. 遇勝地自留粉本, 成圖二十有四, 并記所得金石, 以志古緣.”

³⁵ “嘉慶二年, 秋龔司馬挈戚友爲登岱之游. 適予祈雪泰山, 會合岱麓. 因與訪古石經谷, 王母池諸勝迹, 留題而返. 秋龔并紀所歷爲廿四圖...非親涉者不能知其神似.”



도 9 黃易, 〈孔子廟〉, 《岱麓訪碑圖冊》, 1797, 紙本淡彩, 17.4×50.8cm, 복경고궁박물관

孫星衍은 1797년 1월 14일 황이를 자신의 가석헌에 초대하여 소장품을 함께 감상하였고, 17일과 19일 두 차례 大明湖에 배를 띄우고 함께 주연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2월 2일과 3일에는 泰山에서 황이와 조우하여 石經峪과 王母池를 함께 둘러보았다. 황이의 《岱麓訪碑圖冊》을 통해 여

행의 기억을 되살린 손성연은 인수와 발문을 적음으로써 여행을 회고하였고, 아울러 황이의 화격을 ‘친히 답사하지 않은 자는 알 수 없을 神似’에 도달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황이 여행의 주요 목적은 석각유물을 답사하는 것이고, 화책 제작의 목적은 방비의 여정을 그림으로 옮기는 것이었으나 《岱麓訪碑圖冊》 가운데 비석이 직접 묘사된 예는 드물다. 비석이 가장 크게 묘사된 예로는 〈孔子廟〉를 들 수 있다(도 9). 화면에 묘사된 곳은 곡부 공자묘의 내부이며, 비석이 안치된 곳은 同文門이다. 발문은 同文門 아래의 비석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준다.

일찌기 孔林의 다리 밖에서 漢나라 永壽元年 孔君碑를 발견한 후 나는 林外得碑圖를 제작하였으며, 乾隆甲午年 10월에는 曲阜의 동궐 밖에서 熹平二年斷碑를 발견한 후 賀碑圖를 제작한 바 있다. 阮元이 이 두 석비를 곡부 공묘 同文門에 옮겨 놓았다...수년 동안 세 번이나 가서 비석을 탁본하여 善本을 얻을 수 있었다. 魏나라의 李仲璇修孔廟碑에서 王長孺가 쓴 글 一行을, 宋나라의 張齋賢代祀碑의 뒷면에서 裴瑀가 쓴 글 一行을 발견하였다. 이는 이제까지의 기록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다.³⁶

황이는 1797년 정월 곡부 공묘 내의 同文門에 들러, 황이 방비활동의 대표적 결과물이라 할 孔君碑와 熹平二年斷碑가 안전하게 안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동문

36 “先聖林橋外得漢永壽元年孔君碑，余爲作林外得碑圖，乾隆甲午十月余得熹平二年斷碑，於曲阜東闕外又作賀碑圖，阮學使藝臺移二石于同文門...數年來三過捫碑盡得善本見，魏李仲璇修廟碑側，有王長孺書一行，宋張齋賢代祀碑後有裴瑀一行，前人未錄也。”



도 10 <孔君碑>, 155년, 山東曲阜
漢魏碑刻陳列館



도 11 黃易, <石經峪>, 《岱麓訪碑圖冊》, 1797, 紙本淡彩, 17.4×50.8cm, 북경고궁박물관

문 내에 함께 안치되 있던 李仲璇修孔廟碑와 張齋賢代祀碑를 자세히 살피고 새롭게 명문 한 줄씩을 발견하였다. 동문문 내부에 세워진 비석 중 왼편에 묘사된 구멍이 뚫린 비석은 孔君碑의 실제 모습과 흡사하여 황이가 석비의 모습을 충실히 기록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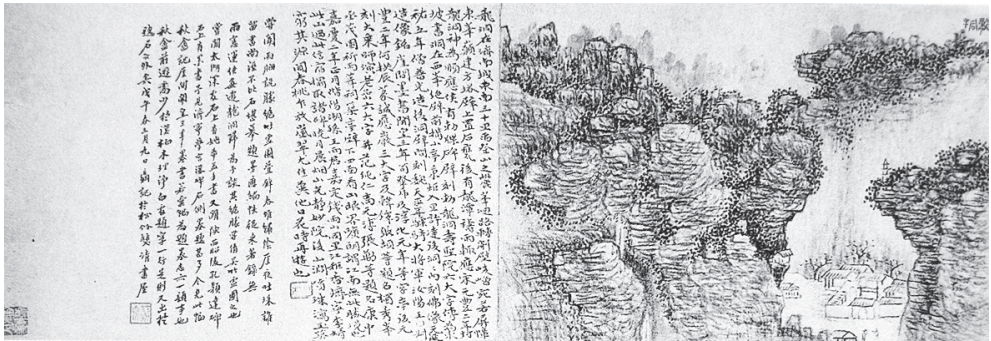
《岱麓訪碑圖冊》은 석각유물과 그 주변의 경관을 원거리에서 포착한 화면구성이 주를 이룬다. 그 예로 <石經峪>을 들 수 있다(도 11). 화면에 중첩된 산등성들이 들어찬 가운데, 왼편에는 두 줄기의 폭포가, 오른 편에는 작은 정자가 묘사되었다. 인물들이 서성이든 중앙의 산등성이든 준법이 생략된 채 여백으로 처리되었다.

水簾洞 위에 있는 石經峪은 ... 돌이 넓고 평평하여 그 넓이가 一畝는 되는데, 그 위에 金剛經을 골고루 새겨놓았다. 글자 크기는 한 톨는 뒹직하고 서체는 고졸하여 반드시 六朝시대 사람의 필적일 것이다. 聶劍光은 ‘제 나라의 王, 子椿이 徂來山에 쓴 石經의 서체와 石經峪의 서체가 같은 사람의 것이라 하나 이것 역시 子椿의 서체인지는 의심스럽다’고 하였으며, 殷赤亭은 ‘李南澗이 석경 뒤에 薛宸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볼 수 없다. 물이 돌 위에 흘러 박락이 점차 심해지니 앞으로 글자의 흔적이 더욱 줄어들까 두렵다. 그 위편에는 高山流水亭이 있다. 비가 온 뒤에 냇물 소리가 사방의 산에 진동을 하니 천하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었다.³⁷

37 “水簾洞上石經峪... 石坪廣宙許, 遍刻金剛經, 字大如斗, 體甚古拙, 必六朝人迹, 聶劍光謂徂來山齊之子椿書與此如出一手, 疑此刻亦子椿書, 殷赤亭云李南澗曾見經後有薛宸名今不可得見, 水流石上剝落漸多他年恐字跡蓋少也, 其上有高山流水亭, 雨後聽泉四山皆響誠天下奇觀.”

발문은 여백으로 처리된 부분이 바로 2000제곱미터가 넘는 암석 위에 金剛般若波羅蜜經을 새긴 현존 최대의 마애석경인 석경육임을 알려 준다. 황이의 《득비도책》이나 《송락방비도책》과 비교하여 《岱麓訪碑圖冊》에 비석의 직접적인 묘사가 적은 이유는 〈석경육〉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는 비석보다는 마애석각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오른편의 작은 정자가 발문에 언급된 ‘高山流水亭’이며 작게 묘사된 인물들은 황이와 손성연 등 석경육을 방문하였던 이들임을 알 수 있다. 일견 평범해보였던 산수풍경이 발문으로 인해 구체적 실경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또한 발문은 황이가 聶劍光, 段松齡 등의 저술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石經峪 금강경의 작자를 子樞, 혹은 薛宸 등으로 추정하였음도 알려 준다.³⁸ 발문은 그림으로는 일일이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방비 여정을 문자로 전달해 줌으로써 금석학에 기반한 학구적이고 진지한 황이의 작화태도를 알려준다.

유사한 발문의 역할을 보여주는 예로는 〈龍洞〉을 들 수 있다(도 12). 龍洞이 위치한 禹登山 전체가 원거리에서 포착된 가운데 화면 중앙에는, 지금은 터만 남은 壽聖院의 모습이 묘사되었으며 절벽 위에는 報恩塔이 묘사되었다. 宋代 이래로 공식 기우제 장소로서 무수히 많은 마애명문과 묵서명, 비석 등이 남아 있는 용동을 황이가 어떻게 답사하였는가는 발문을 통해 상세히 드러난다.



도 12 黃易, 〈龍洞〉, 《岱麓訪碑圖冊》, 1797, 紙本淡彩, 17.4×50.8cm, 북경고궁박물원

³⁸ 阮元的『山左金石志』에는 北齊 天保間(550-559)의 것이라 하였고 聶劍光是 『泰山道里記』에서 ‘북제 子樞의 필적’이라 하였다. 한편 鄒城 鐵山의 摩崖石經과 동일한 서각자인 북제의 승려 서예가 安道一이 작자라는 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龍洞은 濟南城에서 東南으로 30리 떨어져 있다. 禹登山의 기슭 봉우리를 돌고 길을 돌면 깎아지른 절벽과 높고 험한 산세가 병풍과 휘장같이 곱어있다. 동쪽 봉우리에 方塔을 세웠고 절벽 위에는 돌항아리를 놓았다. 그 뒤편으로 龍潭이 있어 기우제를 지내면 응답을 얻는다. 宋 元豐2년에 龍洞神을 順應侯로 봉하고 칙첩비를 세웠는데 벽에는 ‘勅龍洞壽聖院’이라는 큰 글자가 새겨져 있어 소동파의 글씨로 전해진다. 용동 안의 서쪽 봉우리의 절벽에 작은 정자를 세웠으며 햇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면 后洞에 도달한다. 后洞 안에는 불상을 새겼는데 元나라 延祐5年 普光스님이 조성한 것이다. 후동의 벽 사이에는 魏나라 天平년간 驃騎大將軍 汝陽王 叔의 조상명이 새겨져 있다. 벽 사이에는 묵서명으로 ‘開皇三年 苟彖虎, 淳化元年’ 등의 글자가 쓰여 있다. 정자 뒤로는 元豐2年 전서로 ‘誠應巖’이란 3글자와 韓鐸, 張頡 등의 제명이 있다. 獨秀峰에는 ‘大乘師演老岳’이라는 6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고, 范純仁, 高元溥, 張勳 등의 제명이 있다. 康中丞이 茂園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절벽 아래 사당을 세우고 정자를 만들었는데 사방으로 산을 볼 수 있어 시야가 밝고 환하여 江南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경치가 없다고 한다. 嘉慶2年 정월 陽湖의 孫君, 王君 두 사람과 嘉定의 錢雨山, 강거향, 제녕의 이필과 함께 이 산을 지나며 여러 비석들을 탁본하였다. 달이 지고 새벽 안개가 피어나면 산빛이 고요하고 아름답다. 壽聖院 뒤편으로는 폭포가 있는데 그 수원을 알 수 없다. 듣기로는 봄에 도화가 막 피어나면 비취색 운무가 더욱 아름답다고 하니 꽃이 피는 때 다시 오기로 하였다.³⁹⁾

황이가 화면에 동굴 내의 풍경을 담지 않고, 원거리에서 용동 근방의 풍경을 포착한 것은 이같이 복잡하고 상세한 여정을 시각적으로 재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황이의 발문은 개인적 감흥을 적었던 일반적 산수발문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석각명문을 발견하기까지의 과정과 발견된 명문의 해독과 분석, 그 역사적 맥락까지를 밝힌 일종의 금석학적 서술이다. 또한 발문은 그림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이미지를 문자를 통해 상상하도록 해주는 일종의 보완장치라 할 수 있다. 王蒙을 연상시키는 밀도 있는 준법으로 ‘병풍과 휘장같이 곱어있는’ 용동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감지한 관람자는, 화면에 숨겨

³⁹⁾ “龍洞在濟南城東南三十里，禹登山之麓，峰迴路轉，削壁峻嶒，宛若屏帳，東峰巔建方塔，壁上置石瓮，后有龍潭，禱雨輒應。宋元豐二年，封龍洞神爲順應侯，有勅牒碑，壁刻勅龍洞壽聖院六大字，傳爲東坡書。洞內西峰絕壁，前拘小亭，乘炬入里許，達后洞。洞內刻佛像，元延祐五年僧普光造，后洞壁間刻魏天平年驃騎大將軍汝陽王叔造像銘，崖間墨書開皇三年苟彖虎及淳化元年等字，亭后元豐二年篆誠應巖三大字及韓鐸，張頡等題名，獨秀峰刻大乘師演老岳六大字，并范純仁，高元溥，張勳等題名，康中丞茂園祈雨葺祠築亭壁下，四面看山，眼界曠朗，謂江南無此勝景也。嘉慶二年正月 偕陽湖孫王兩君，嘉定錢雨山，同里江矩香，濟寧李此山過此，信宿拓取諸碑，曉月晨煙，山光靜妙，院后山澗噴珠瀉玉，莫窮其源，聞春桃乍放，嵐翠尤佳，翼他日花時再游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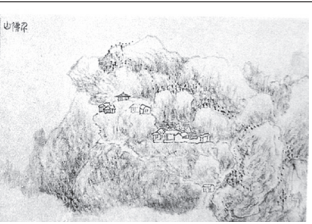
도 13 黃易, 〈岱頂〉, 《岱麓訪碑圖冊》, 1797, 紙本淡彩, 17.4×50.8cm, 북경고궁박물원

져 있는 용동과 후동의 석각 유물들을 발문을 읽음으로써 머릿속으로 그려나가면서 답사의 여정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岱麓訪碑圖冊》가운데 〈岱頂〉은 황이가 염원해 하지 않았던 泰산의 최정상에 해당한다(도 13). 이 같이 화면 상반부를 여백으로 처리하고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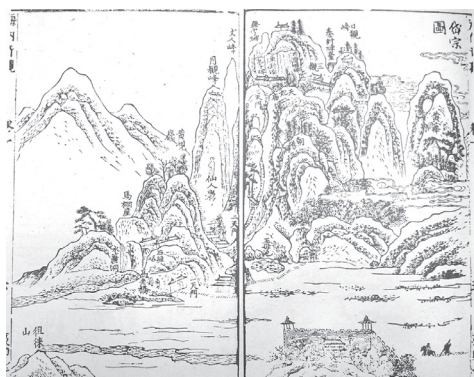
의 정상부분만을 포착한 화면구성은 24장의 화책 가운데 가장 많이 보이는 예로 〈功德頂〉, 〈千佛山〉, 〈后石室〉 등에서도 보인다.(표2 참조) 발문을 통해 화면에 묘사된 태산 최정상의 전각은 玉皇廟이며 오른 편은 封禪臺, 그 우편에는 작은 정자와 함께 日觀峰이 묘사되었으며 화면 하단 인물들이 오르는 곳은 南天門임을 알 수 있다.⁴⁰ 발문에는 상세히 언급된, 글자를 새기지 않은 ‘無字碑’는 화면에서 옥황묘의 문 앞에 작게 묘사되었다.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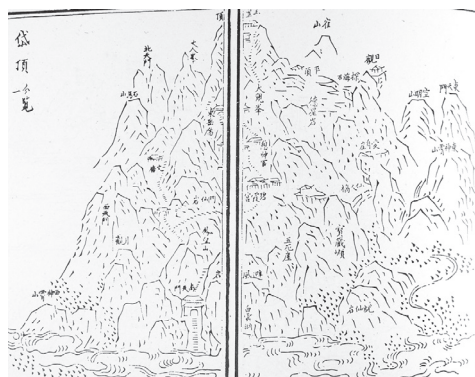
| | | |
|---|---|--|
|  |  |  |
| 〈后石室〉 | 〈功德頂〉 | 〈千佛山〉 |

권릉, 가경년간에는 태산의 풍광이 지방지의 삼도나, 『名山圖』, 『岱覽圖』, 『海內奇觀』 등의 목판화로도 묘사되었다. 그러나 태산을 묘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岱廟로부터 옥

⁴⁰ “태산의 정상을 德星巖, 이름하여 太平頂 혹은 玉皇頂이라 칭하는데 무리의 산을 발아래 굽어보고 있다. 無字碑는 높이가 一丈五尺이 넘고 오른편 가장자리에 행서로 ‘帝’자가 쓰여 있는데 宋代의 필적과 유사하다. 송나라 仁宗 때 飛白으로 쓰여진 ‘帝’자가 假師에 있는데, 이것이 혹시 眞宗이 태산에 오를 때 쓴 것인지 알 수 없다...宋元代的 필적이 가장 많다. 나는 江居香, 李此山과 함께 廟에 묵으며 다음날 동틀 무렵에 日觀峯에 올라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다(岱巔爲德星巖, 名太平頂, 又稱玉皇頂, 望衆山皆在足下, 無字碑高一丈五尺餘, 右邊有行書帝字, 類宋人迹, 宋仁宗書飛白帝字刻於假師, 此或眞宗登山時書未可知也...宋元人題字最多, 余同江居香李此山宿廟中, 凌晨登日觀峯看初陽出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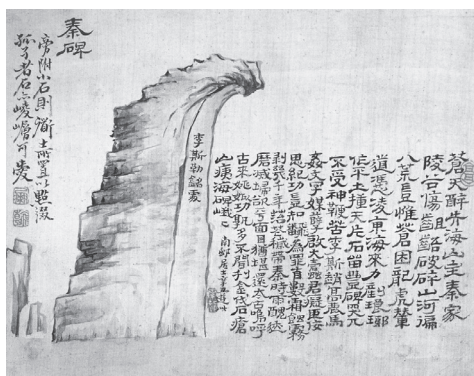


도 14 <岱宗圖>, 『海內奇觀』, 1609년 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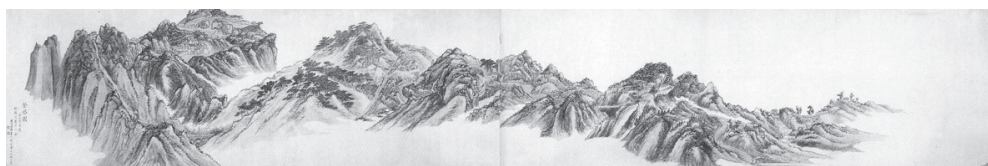
도 15 <岱頂圖>, 『岱覽圖』, 同治年間(1862-1874) 간행

황묘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모습을 담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건륭년간 출간된 『海內奇觀』 내의 <岱宗圖>에도 태산의 전체 모습이 묘사되었으며, 同治년간(1862-1874) 발행된 『岱覽圖』의 <岱頂圖>에도 황이의 <대정>보다는 넓은 풍광이 담겨 있다(도 14, 15). 황이는 유물을 답사하기 전, 지방지나 문헌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목판화의 화면 구도를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목판화의 도해적이고 정형화된 구도보다는 사적 체험에 바탕한 독자적 화면구성을 택하였다.



도 16 高鳳翰, <琅琊臺刻石圖>, 《雜畫冊》, 紙本淡彩, 21.9×27cm, 상해박물관

황이의 <대정>은 같은 시기 진시황제의 각석을 그린 高鳳翰(1683-1749)의 <琅琊臺刻石圖>나 태산을 묘사한 羅聘의 1773년 작 <등대도>와도 구별된다(도 16,17). 琅琊臺刻石을 답사한 후 비석자체만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李斯(?-BC208)의 銘文을 隸書로 적은 고봉한의 작품은 주변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석각 유물을 묘사한 황이의 화면 구성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도 17 羅聘, <登岱圖>, 1773, 紙本淡彩, 52.2×307.8cm, 광동성박물관



도 18 黃易, 〈大明湖〉, 《岱麓訪碑圖冊》, 1797, 紙本淡彩, 17.4×50.8cm, 북경고궁박물원

의 지형을 상세히 묘사한 나빙의 〈등대도〉와 비교하면, 황이의 〈대정〉에는 오히려 실경의 요소가 덜 강조된 듯 보인다. 그러나 이는 손성연이 지적한 바처럼 ‘形似’가 아닌 ‘神似’를 염두에 두고서 개인적 체험을 화면에 담고자 했던 문인화가로서 황이의 작화태도를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대명호’는 황이가 정월보름을 전후로 歷城에 머물며 손성연 등의 지인들을 만나 즐겼던 순수한 ‘유람’의 장소였다(도 18). 「일기」는 정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일정을 두 줄 혹은 세 줄로 짧게 기록하였는데 정월 16일에는 “歷城 徐刺史가 小滄浪亭에 초대하여 강저향, 이차산과 작은 배에 올라 대명호를 유람한 후 모두 함께 北極閣에 올라 등불을 들고 달밤을 거닐었다.”라고 기록하였으며, 정월 19일에는 손성연, 權充沂 등과 대명호의 淨香齋畫舫에서 주연을 벌였던 것을 기록하였다.⁴²

그러나 그림으로 묘사된 〈대명호〉에는 넓은 수면에 한가롭게 배들이 떠 있는 가운데, 「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요소들, 예를 들면 王士禎(1634-1711)이 秋柳詩를 지었던 ‘水面亭’, 그 우편의 ‘대명호’라는 세 글자가 새겨진 元대의 비석, 石橋들을 삽입하였다.⁴³ 이 같

羅聘의 〈登岱圖〉는 태산 정상으로 오르는 등반로를 상세히 묘사하였고 산 정상의 사찰, 누각들을 그려 넣어 실경적 요소가 강해 보이나, 실제로는 나빙이 태산에 오르기 이전 여행을 다녀 온 주문자의 설명을 토대로 제작된 것이다.⁴¹ 태산에 올라 보지 않은 채 주문자의 요구에 응해 태산

41 나빙은 평생 3폭의 태산도를 그렸는데 제1폭이 광동성 박물관에 소장된 〈登岱圖〉이며, 2폭은 문집으로 전하는 〈遊岱圖〉이며, 3폭은 〈鄧石如登岱圖〉로 알려진 북경고궁소장본이다. 〈유대도〉와 〈등석여등대도〉가 태산 등반의 경험 위에 그려진 것에 반해 〈등대도〉는 태산을 등반하기 이전에 제작되었다.

42 “攝歷城令徐刺史招飲，小滄浪亭同江程香，李此山諸子，乘小艇泛大明湖，都人士女，登北極閣踏月看燈。”

43 “제남의 대명호를 유람하였다...水面亭은 王士禎이 秋柳詩를 지었던 장소이다. 權廉使, 孫星衍, 金五峯, 徐湘蘅은 나와 周曼亭, 江程香, 鄭柳由, 李此山 제군을 대명호의 小滄浪亭畫舫에 초청하였다. 은색 등불과 녹색 파도, 홍색 정자는 강남지방 풍경이라 해도 손색이 없었다...‘神在’ 두 글자가 새겨진 宋代 元豐 三年碑와, ‘大明湖’라는 큰 글자가 새겨진 元代 비석의 탁본을 얻었다(遊濟南大明湖...水面亭王漁洋賦秋柳詩處也. 權廉使孫公淵如金太守五峯徐司馬湘蘅, 招余與周孝廉曼亭江程香鄭柳由李此山諸君, 集小滄浪亭畫舫, 銀燈綠波紅樹何減江南風景...古碑惟搨得宋元豐三年神在二大字, 元刻大明湖三大字).”



도 19 黃易, 1793년작 〈詩畫卷〉, 1793, 紙本淡彩, 11.6×220cm, 상해박물관

은 묘사는 화면에 실경으로서의 현장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 그림이 금석학적 맥락에서 제작된 ‘방비도’의 한 장면임을 확인시켜 준다.

대명호는 이후에도 황이의 회화에 종종 등장하였는데 1793년작 〈詩畫卷〉을 예로 들 수 있다(도 19). 수면을 넓은 여백으로 처리한 一河兩岸식 구도는 元나라 산수화의 여운을, 산등성이에 구사된 피마준과 산세 묘사는 청대 정통주의 풍격을 보여준다. 실경적인 요소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전형적인 사의화로 보이는 이 산수화는 북경을 떠나 제남으로 가는 친구 雪懷를 위해 제남의 대명호를 시와 함께 그려 준 것이다. 시의로 충만한 이 그림은 화가의 작화태도에 따라 같은 소재가 어떻게 달리 화면에 표현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황이의 개성적 필법을 보여주는 예로는 〈尖山〉을 들 수 있다(도 20). 尖山은 鄒城에



도 20 黃易, 〈尖山〉, 《岱麓訪碑圖冊》, 1797, 紙本淡彩, 17.4×50.8cm, 북경고궁박물관

위치한 산으로 마애석경이 새겨진 곳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황이는 1월 8일의 일기에서 “추성의 북문 밖 강산과 소철산, 침산, 갈산의 여러 절벽에는 불경이 두루 새겨져 있다. 그러나 바람이 심하여 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한 바 있다.⁴⁴ 그러므로 황이는 침산의 마애석경을 가까이서 관찰하지 못한 채, 멀리서 바라보았던 산

⁴⁴ “北門外崗山小鐵山尖山葛山, 諸崖壁俱刻佛經, 風大不及觀。”

세를 기억하며 이를 그림으로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침산〉에는 그래서 인지 인물의 묘사도 생략되어 있고 24폭 가운데 실경의 요소가 가장 적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황이 화풍의 중요한 근간이라 할 ‘倪黃’의 풍격이 소략한 화면구성과 飛白을 많이 사용한 건조한 필법 가운데 잘 드러나 있다. 蔣寶麟(1781-1840)은 『墨林今話』에서 황이의 이 같은 필법을 평하며 “작품을 보면 乾筆을 많이 사용하였고, 필법이 성글고 고요하여 倪黃一派를 깊이 연구하였다”라고 평한 바 있다.⁴⁵

〈침산〉에 보이는 건조하고 서예적인 필법은 《岱麓訪碑圖冊》의 〈후석실〉이나 〈철산〉, 〈강산〉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된 황이의 개성적인 만년 필법으로 후대 평론가들은 이를 ‘金石氣’를 담은 필법이라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黃賓虹(1865-1955)은 『古畫微』에



도 21 黃易, 〈中岳廟〉, 《嵩洛訪碑圖冊》, 1796, 紙本淡彩, 17.4×50.8cm, 북경고궁박물원



도 22 吳大澂, 〈中岳廟〉, 《臨黃易嵩洛訪碑圖冊》, 紙本淡彩, 개인소장

⁴⁵ 蔣寶麟은 『墨林今話』에서 황이의 이 같은 필법을 평하며 “家學을 이어 산수에 더욱 工巧하였고 奚岡과 이름을 나란히 하였다. 馮墨香은 『墨香居畫識』에서 “董源과 巨然의 화법을 얻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작품을 보면 乾筆을 많이 사용하였고, 필법이 성글고 고요하여 倪黃一派를 깊이 연구하였다(善承家學, 尤工山水, 與鐵生齊名, 馮墨香謂‘得北苑, 巨然法’, 然其所作, 每多乾筆, 蕭疎澹雋, 窮于倪黃一派爲深)”라고 평하였다. 蔣寶麟, 『墨林今話』卷5(合肥: 黃山書社, 1992), p. 118.

서 황이를 ‘金石家の 회화’ 장에 포함하여 평가기를 “문장에 능하고 서법이 면밀하여 金石의 氣韻을 얻은 자이다(能文章, 精書法, 得金石之氣者也)”라 하였으며, 미술사학자 何延喆(1946-)은 “황이의 만년 작에는 금석의 기운이 더욱 농후하였다”라고 평하였다.⁴⁶ 이는 황이의 평생 동안의 금석연구가 그의 산수화 필법에 ‘금석의 기운’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 하에, 황이에게서 19세기 금석파화가들의 선구자로서의 면모를 찾을 수 있게 한다.

후대의 화가 가운데 황이의 족적을 잇는 대표적 화가로는 吳大澂(1835-1902)을 꼽을 수 있다. 그는 대수장가이자 금석학자로, 산동의 河東河道總督을 지내며 많은 金石彝器들을 발굴, 수장하였다. 문인화가였던 오대징은 스스로 방비도 32폭을 그릴 계획을 세우고 황이의 방비도를 임모하기를 원하였다.⁴⁷ 결국 오대징은 1891년 소장가로부터 황이의 《嵩洛訪碑圖冊》을 빌려 24폭을 모두 임모하였다(도 21, 22). 이 가운데 한 폭인 오대징의 〈中岳廟〉는 화면구성과 필법, 서체에 이르기까지 황이를 면밀히 임모한 작품이다. 이는 화가이자 금석학자로서 황이를 계승하려 노력했던 오대징의 작화태도를 잘 보여준다.

IV. 결론

황이는 18세기의 대표적 금석학자로, 석각유물을 찾아 광범위한 방비활동을 벌였고 이를 ‘기유도’, 혹은 ‘방비도’를 통해 시각화하였다. 황이의 방비도 가운데 1797년작 《岱麓訪碑圖冊》은 산동의 제녕, 제남, 태산의 방비활동을 그림으로 옮긴 만년 방비도의 대표작이다. ‘倪黃’의 화풍을 토대로 ‘사의’를 추구하였던 황이의 정통주의 화풍과 ‘사실’을 추구하였던 금석학자로서의 황이의 관점이 결합되어, 현장감이 살아 있으면서도 시적 정취를 잃지 않은 문인실경산수의 경지를 개척하였다.

황이의 금석학에의 몰두는 회화에 있어서 ‘금석 기운이 농후한 필법’으로 표출되었는데, 이는 《岱麓訪碑圖冊》의 〈침산〉에 보이는 갈필의 비백을 사용한 서예적 필법으로 드러난다. 또한 황이가 즐겨 사용한 구도는 〈대정〉이 예시해 주는 바와 같이 지방지 삼도나 목판화에서 사용되던 정형화되고 도해적인 화면구성과는 구별되는, 사적인 경험과 시각이 묻어나는 구도였다.

⁴⁶ 李明, 앞의 글, p.252; 李明, 「黃易繪畫與“金石學”關係再思」, 『美苑』, (2010. 3) 참조.

⁴⁷ 오대징이 황이의 《嵩洛訪碑圖冊》을 임모하기까지의 과정은 白謙慎, 「吳大澂和他的拓工」, 『黃易與金石學論集』, pp. 197-201.

《岱麓訪碑圖冊》을 고찰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점은 「岱麓訪古日記」와 《岱麓訪碑圖冊》의 발문을 통해 황이가 남긴 문자기록이다. 매일의 방비 여정과 그날 수습한 석각 유물들을 기록한 「岱麓訪古日記」는 《岱麓訪碑圖冊》 제작을 위한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방비여행에서 돌아 온 황이는 수습한 탁본을 고증하고 해독하는데 5개월 이상을 보낸 후, 중요한 석각유물이 남아 있는 장소 스물네 곳을 선택하여 화책으로 제작하였다. 예를 들면 대명호에서는 닛새 이상을 보냈지만 석각유물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한 장면만으로 묘사하였다. 반대로 첩산, 철산, 강산의 경우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 마애석경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음에도 그 금석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세 폭의 화면을 할애하였다.

화책의 매 폭에 달린 발문은 일기보다 상세하게 석각유물을 묘사하고 있다. 장소를 찾아가는 여정, 유물의 위치와 상태, 명문의 고증과 해독, 유물의 사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방비활동 전모를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이 같은 황이의 발문은 산수화 발문으로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예로, 일종의 사료이자 금석학적 기록물이며 동시에 그림으로는 시각화할 수 없는 방비활동의 시간적 추이와 공간적 이동을 문자로서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미지는 발문을 통해 의미와 생명력을 부여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이 금석학적 발문과 이미지가 결합된 황이의 방비도를 중국의 미술사학자 單國強(1942-)은 ‘실경산수의 신앙식’이라 칭한 바 있다.⁴⁸

표 3 황이 방비도책의 구성

| 제목 | 岱麓訪碑圖冊 | | | 訪古紀遊圖冊 | 得碑圖冊 | 嵩洛訪碑圖冊 |
|----|----------------------|-----|------------|----------------|--------------|------------------|
| 구성 | 24폭 | | | 12폭 | 12폭 | 24폭 |
| 제작 | 1797 (제남, 제녕, 태산) | | | 1771 (항주지방) | 1793 (산둥) | 1796 (송산, 낙양) |
| 소장 | 고궁박물관 | | | 고궁박물관 | 천진예술박물관 | 고궁박물관 |
| 크기 | 17,4×50,8cm | | | 9,4×19,5cm | 17,8×51,5cm | 17,5×50,8cm |
| | 제목 | 위치 | 발문작자 | 제목 | 제목 | 제목 |
| 1 | 甘露泉 | 영암사 | | 龍泓洞 | 三公山移碑 | 開元寺 |
| 2 | 鐵山 | 추성 | 王秉韜 | 水樂洞 | 詩境軒賞碑 | 等慈寺 |
| 3 | 對松山 | 태산 | 翁方綱 趙懷玉 | 茭蘆庵 | 肥城孝堂山石室 | 軒轅 |
| 4 | 鐵袈裟 | 영암사 | | 石笋峰 | 金乡別石室 | 少室石 |
| 5 | 嬰桃源 | 태산 | | 石屋洞 | 良友贈碑 | 少林寺 |

⁴⁸ 單國強, 앞의 논문, p. 188.

| | 제목 | 위치 | 발문작자 | 제목 | 제목 | 제목 |
|----|-------|----|------------|------|---------|------|
| 6 | 開元磨崖碑 | 태산 | 翁方綱 | 六和塔 | 濟寧學宮升碑 | 嵩陽書院 |
| 7 | 王母池 | 태산 | | 吳山 | 紫雲山探碑 | 開母石闕 |
| 8 | 功德頂 | 영암 | | 寄暢園 | 兩城山得碑 | 中岳廟 |
| 9 | 岱頂 | 태산 | 翁方綱 趙懷玉 | 惠山寺 | 禱墓訪碑 | 石淙 |
| 10 | 大汶口 | 태안 | 翁方綱 | 拂水巖 | 晉陽山題壁 | 會善寺 |
| 11 | 岱廟 | 태산 | 翁方綱 | 金石重盟 | 嘉祥洪福院拓碑 | 離岳寺 |
| 12 | 龍洞 | 제남 | 翁方綱 | 松下清齋 | 小蓬萊閣賀碑 | 緱山 |
| 13 | 孟子廟 | 추성 | 翁方綱 趙懷玉 | | | 小石山房 |
| 14 | 石經峪 | 태산 | | | | 平等寺 |
| 15 | 崗山 | 추성 | 翁方綱 | | | 白馬寺 |
| 16 | 尖山 | 추성 | | | | 香山 |
| 17 | 孔林 | 곡부 | 翁方綱 | | | 老君洞 |
| 18 | 佛峪 | 제남 | | | | 大覺寺 |
| 19 | 五峰 | 제남 | | | | 奉先寺 |
| 20 | 大明湖 | 제남 | 翁方綱 | | | 龍門山 |
| 21 | 千佛山 | 제남 | 翁方綱 | | | 伊闕 |
| 22 | 孔子廟 | 곡부 | 翁方綱 | | | 卽山 |
| 23 | 靈巖寺 | 제남 | 翁方綱 | | | 太行秋色 |
| 24 | 後石室 | 태산 | | | | 晉碑 |

*주제어(Key Words)_황이(黃易, Huang Yi), 대록방비도(岱麓訪碑圖, Album of Visit to the Stone Stele on Mount Tai), 방비도(訪碑圖, Album of visit the Stone Stele), 실경산수(實景山水, Real Landscape), 태산(泰山, Mount Tai), 금석학(金石學, Studies in ancient monumental inscriptions)

■ 투고일 2015년 8월 3일 | 심사개시일 2015년 9월 22일 | 심사완료일 2015년 11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5년 11월 30일 ■

참고문헌

사료

- 阮元, 『小滄浪筆談』叢書集成初編, 北京: 中華書局, 1985.
- 秦祖永, 『桐陰論畫—清人畫學論著』下, 台北: 世界書局, 1977.
- 蔣寶麟, 『墨林今話』, 合肥: 黃山書社, 1992.
- 『山東府縣志輯, 康熙泰安州志, 乾隆泰安府志(一)』, 『中國地方志集成』63卷, 上海: 鳳凰出版社, 上海書店, 巴蜀書社.
- 『山東府縣志輯, 乾隆曲阜縣志』, 『中國地方志集成』73卷, 上海: 鳳凰出版社, 上海書店, 巴蜀書社.
- 黃易, 『秋盦遺稿』, 『續修四庫全書』集部 別集類, 1466, 上海: 古籍出版社, 2001.
- _____, 『嵩洛訪碑日記』, 『粵雅堂叢書』, 臺北: 藝文印書館, 1965.
- _____, 『岱巖訪古日記』, 『遜齋金石叢書』, 杭州: 西泠印社, 1921.
- _____, 『小蓬萊閣金石文字』, 『石刻史料新編』第3輯 1卷,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1986.

단행본

- 故宮博物院 編, 『黃易與金石學論集』, 北京: 故宮出版社, 2012.
- Chou, Ju-hsi and Brown, Claudia. *The Elegant Brush—Chinese Painting under the Qianlong Emperor 1735–1795*, Phoenix, Ariz.: Phoenix Art Museum, 1985.

논문

- 景滋本, 「君才不獨書詩畫黃絹捫碑過古人—黃易《嵩洛訪碑圖》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 金丹, 「清代阮元書法金石交游考(下)—阮元與錢大昕 畢沅 黃易之金石交誼考」, 『榮寶齋』, 2013. 9, pp. 266–275.
- 單國強, 「黃易的訪碑圖」, 故宮博物院 編, 『黃易與金石學論集』, 北京: 故宮出版社, 2012, pp. 188–190.
- 白謙慎, 「吳大澂和他的拓工」, 故宮博物院編, 『黃易與金石學論集』, 北京: 故宮出版社, 2012, pp. 197–201.
- 李明, 「“金石學”, 山水畫和繪畫史—從黃易訪碑圖談起」, 故宮博物院編, 『黃易與金石學論集』, 北京: 故宮出版社, 2012, pp. 251–256.
- 李明, 「黃易繪畫與“金石學”關係再思」, 『美苑』, 2010. 3, pp. 91–93.
- 施安昌, 「黃易《岱麓訪碑圖》」, 『紫禁城』, 1987. 3, pp. 14–16.
- 楊國棟, 「黃易生平交游考論」, 山東工藝美術學 碩士學位論文, 2010.

- 葉玉, 「黃易訪碑活動與交友(一)-乾嘉時期的訪碑風氣」, 『榮寶齋』, 2010. 3, pp. 294-307.
- 葉玉, 「黃易訪碑活動與交友」, 中國美術學院 博士學位論文, 2009.
- 陰勝國, 「老筆蒼秀 蕭疏淡雋-略論黃易, 奚岡, 戴熙山水畫中的金石味」, 『藝術品』, 2014. 6, pp. 88-95.
- 程渤, 「清代雙鉤摹寫法研究」, 『美術學報』, 2014. 5, pp. 98-104.
- 朱琪, 「黃易的家世, 生平與金石學貢獻」, 故宮博物院編, 『黃易與金石學論集』, 北京: 故宮出版社, 2012, pp. 350-371.
- 秦明, 「黃易的訪碑圖與碑刻鑑藏」, 『紫禁城』, 2010. 3, pp. 102-115.
- Tseng, Lilian Lan-Ying. "Retrieving the Past, Inventing the Memorable: Huang Yi's Visit to the Song-Luo Monuments," In *Monuments and Memory, Made and Unmade*, ed. Robert S. Nelson and Margaret Oli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2003, pp. 37-58.

국문초록

전각가, 서예가로 알려진 黃易(1744-1802)는 활발한 訪碑활동을 통해 武梁祠石室, 三公山碑, 熹平石經殘片 등을 발굴한 저명한 금석학자이기도 하였다. 황이는 자신의 방비활동의 여정을 일기를 통해 문자로 기록하였고, 訪碑圖 제작을 통해 회화작품으로 재현하였다.

산동지방을 중심으로 관직생활을 했던 황이는 1797년 정월과 2월 총 29일간 태산을 중심으로 제녕, 제남, 태안 지방을 답사하고 그 여정을 「岱巖訪古日記」로 기록하고 24폭의 《岱麓訪碑圖冊》으로 시각화하였다. 방비여행 가운데 山東學政을 지내던 孫星衍이 중간에 합류하기도 하였으며, 화책이 완성된 후에는 이를 북경으로 보내 翁方綱, 趙懷玉 등의 발문을 받음으로써 《岱麓訪碑圖冊》을 황이 개인의 방비의 기록이자, 당대 저명 금석학자들간의 교류의 기록이 되었다. 황이의 금석학에의 몰두는 회화에 있어서 ‘금석 기운이 농후한 필법’으로 표출되었는데, 이는 《岱麓訪碑圖冊》의 〈점산〉에 보이는 갈필의 비백을 사용한 서예적 필법으로 드러난다. 또한 황이가 즐겨 사용한 구도는 〈대정〉이 예시해 주는 바와 같이 지방지 삽도나 목판화에서 사용되던 정형화되고 도해적인 화면구성과는 구별되는, 사적인 경험과 시각이 묻어나는 구도였다.

《岱麓訪碑圖冊》의 가장 큰 특징은 황이가 매 폭마다 남긴 발문의 효용이다. 여행에서 돌아온 황이는 5개월 여 동안 수습한 탁본을 고증하고 해독한 후, 장소를 찾기까지의 여정, 유물의 위치와 상태, 명문의 고증과 해독, 유물의 사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방비활동 전모를 「岱巖訪古日記」보다 상세하게 화책의 발문을 통해 기록하였다. 이 같은 발문의 역할을 〈石經峪〉, 〈龍洞〉등에서 볼 수 있다.

이 같은 황이의 발문은 산수화 발문으로서의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예로, 일종의 사료이자 금석학적 기록물이며, 동시에 그림으로는 시각화할 수 없는 방비활동의 시간적 추이와 공간적 이동을 문자로서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이 금석학적 발문과 이미지가 결합된 황이의 방비도를 중국의 미술사학자 單國強(1942-)은 ‘실경산수의 신앙식’이라 칭한 바 있다. 《岱麓訪碑圖冊》은 ‘倪黃’의 화풍을 토대로한 정통주의 화풍에 ‘사실’을 추구하였던 금석학자로서의 황이의 관점이 결합되어, 현장감이 살아 있으면서도 시적 정취를 잃지 않은 문인실경산수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Abstract

A Study of Huang Yi's Album on Ancients Monuments: Focusing on the Album *Visit to the Stone Stele on Mount Tai*

Joohyun Lee *

This is an essay about an album made by a Chinese literati painter, Huang Yi (1744-1801), to commemorate his visit to ancient monuments of the Mount Tai in Shandong Province. Huang Yi belongs to a group of *Zhejiang* 浙江 artists whose devotion to painting ran parallel to their devotion to seal-carving. The son of Huang Shugu 黃樹穀, a skilled calligrapher who harbored an interest in hydraulic engineering, Huang Yi was put in charge as subprefect 同知, of the operation of the Grand Canal in *Jining* 濟寧, Shandong. An avid epigrapher and amateur archaeologist, Huang Yi took advantage of his appointments and began his wide-ranging travels to visit and discover ancient steles, including the carved stones unearthed at *Wuliang Shrines* 武梁祠, and to collect rubbings of their inscriptions.

During his ascent of the sacred Mountain Tai from seventh January to fifth February in 1797 Huang Yi wrote a dairy entitled *Visit to the Relics on Mt. Tai* (岱巖訪古日記 *daiyan fanggu riji*) and five month later produced an album with twenty-four leaves entitled *Visit to the Stone Stele on Mt. Tai* (岱麓訪碑圖冊 *dailu fangbei tuce*) illustrating the twenty four places he has visited in 1797. The diary details where Huang visited, what he examined, purchased, and with whom he worked, consulted and traveled. It became the source for his postscripts to the album leaves.

Huang depicted twenty four scenes in which the historical stone stele or stone engravings are located such as *Dragon-Grotto* 龍洞 or *Ridge of the Engraved Stone Sutra* 石

* Associate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經峪. The location he represented are all religious and confucian sites including *Shrine for Confucius* 孔子廟 and *Shrine for Mencius* 孟子廟 or *Buddhist Tempel of Miraculous Rocks* 靈巖寺. Unlike the diary, the pictures are scene-oriented and either condense explorations of different days into one scene or divide a single days adventure in to two or three scenes. The way he chosen to represent these monuments – using ink on paper with the calligraphic brush strokes known as *Ni-Huang Style* - is familiar in the traditional literati painting.

Huang Yi might have kept his diary to himself, but he showed his painting to his friends. After finishing the album he immediately sent it to Weng Fanggang 翁方綱 in Beijing, a learned scholar with great enthusiasm for ancients texts. Huang Yi showed the album also to Sun Xingyan 孫星衍, Sun inscribed the title of the album with huge seal script and left a short inscription on the album.

Each leaf of the album contains postscript of Huang Yi in which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spot and the archaeological meanings of the stele are detailed described. Chinese art historian Shang Guoqiang 單國強 called this composite of image and text, pictures and their corresponding postscripts which contain both visual and textual evidence of journey as ‘a new style of the chinese real landscape 實景山水新樣式’.